

# 國家基本圖(Base Map) DB의 出現을 기대하며

한전에서는 전국에 散在한 방대한 전력공급용 배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80년대 중반부터 지리정보 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도입을 검토 연구하여, Pilot 시스템의 구축과 시험을 통한 타당성의 검증을 수행하였고, 실용화 시스템의 개발은 90년도 부터 시작하여 금년('93) 5월에 1단계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다.

개발내용을 보면 설비의 諸元, 履歷, 構造, 계통연결상태, 부하상태등을 관리하는 설비자료관리시스템, 설비도면, 지적도면등의 입출력을 위한 도면관리시스템, 배전설비의 신증설이나 유지보수용 공사에 필요한 설계서작성 시스템, 그리고 상기과정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 유지, 검토, 출력등을 위한 종합DB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을 개발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의 특성상 바탕도면(Base Map)을 필요로 하는데 국가적인 Base Map DB가 없어 한전 고유의 Map DB를 구축하여 사용했던 점이다.

한전에서는 Base Map으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타기관에서는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의 Base Map을 각 기관이 제각기 입력유지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중복되므로 관련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Base Map을 종합관리하고 각 사용자 기관에 공급할 수



趙登龍

한국전력공사 정보처리처장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서 각 기관의 고유 설비자료라도 업무처리상 기밀에 속하지 않는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겠다.

금년들어 통계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Base Map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태동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기본도사업이란 물론 표준화되어야하고, 한번 구축한 국가 Data Base는 기본틀을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러나 표준화와 항구적인 틀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는 국가적으로 손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우선 일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점진적으로 표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미 많은 지방행정관서나 공공기관에서 GIS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는 범국가적 지리정보시스템용 Base Map 구축을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GIS에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유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기본도작성은 물론 각 기관 업무처리에 GIS가 추진되어지길 바란다.